

◆며느리권씨 일전 9-2

유한당 권씨(柳閑堂權氏, 추밀공파 28世)

코리아 카톨릭의 개조 이벽(李礪)의 부인, 유한당언행실록(柳閑堂言行實錄)의 주인공



권엄 초상

만 권일신의 부친이 권암(權巖)이나 권엄(權儼)과 혼돈한 바도 있고 유한당언행실록(柳閑堂言行實錄) 기재 부분, 그리고 권일신과 이벽이 같이 행동했고 나이도 20살 정도 차이나니 그리 믿었고 믿고 싶었을 것이고 명문 '권엄(權儼)'가에서도 굳이 알리고 싶어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지금 을사오적 권중현의 후손의 가계도를 본기자는 다 취재하고도 발표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다.

부친 권엄은 안동권씨 추밀공파 명문 거족 권근의 후예이고 임진왜란시 금산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한 영웅적 인물 권종(權悰, 1554~1592), 권율 도원수의 사촌형(兄)의 직계이다.

모친은 평양조씨 조수징(趙壽徵)의 딸(1728~1797, 70살)로 생각된다.

그러면 그녀의 가계를 파조 10세 권수평까지 거슬러가보면 부친부터 한성판윤(서울시장)이니 가히 명문 거족이다.

29세 유한당 부친 권엄(權儼, 1731~1803) 염서공(葉西公), 1756 식년시 포천 거주 유학으로 진사, 흥덕군수, 충정감사, 한성판윤, 병조판서, 기로사, 지종추부사, 73살)

28세 유한당 조부 권밀(權謐, 1669~1766, 68살) 좌참찬

27세 유한당 증조부 권엄(權弇) 지포공(芝浦公), 처사, 하계 권유(權愈)의 문인, 호조참조증 1669~1738, 70살)

26세 권옹(權頤, 1649~1671, 23살, 추증 좌승지) 묘소는 포천시 소재.

25세 권수(權脩, 1618~1684, 67살), 추밀공파 권수계파조, 감사공, 생부는 숙부 권담(權坦, 군기부정부), 승지, 황해도관찰사, 경상관찰사.

24세 권진(權鎮, 1572~1624, 53살) 상락군(上洛公) 수은공, 임진왜란시 선무원동공신1등, 사간원 정언, 병조좌랑, 사헌부정령, 도승지, 이팔난 당시 사행, 신원, 의정부영의정准奏。

23세 권현(權峴, 1554~1594, 41살), 부친 권종 전사시 시신을 포천으로 반장, 공릉합봉, 숭정대부의 정부 좌찬성 추증.

22세 권종(權悰) 충민공, 금산군수, 장열한 전사.

21세 권지(權輯) 중종23년 식년시, 증직대부중림도찰방.

20세 권적(權勤) 강화공(江華公), 1470 의금부도사, 안동부판관, 김포현령, 안산군수, 아들이 권철 영의정, 손자가 권율 장군, 추증 영의정.

19세 권교(權喬), 양근공(楊根公), 진주판관, 양근군수(양평군일대), 자현대부 이조판서 추증, 향년 73살.

18세 권휘(權麾, 1422~1461, 40살) 연천공, 연천현감, 병으로 사자, 양촌 신도비문 글씨

17세 권체(權體, 1387~1445, 59살)/16세 권근(權近)/15세 권희(權僖)/14세 권고(權皋)/13세 권보(權溥)/12세 권단(權暉)/11세 권위(權位)/10세 권수평(權守平) 추밀공파조

대략 보자면 포천, 양주에 기반을 두고 있고 묘소도 대부분 그 쪽에 있다.

안동권문은 코리아 천주교에 있어서 최초의 세례자이며 순교자 권빈센시오로부터 윤지충 사건의 권상연(야고보), 그리고 권일신, 권철신 등 많은 순교자와 권인, 권진이, 권희 등의 성인, 권상문, 권상연, 권천례 등의 복자를 가지고 있는 성씨이다. 따라서 성조(聖祖) 이벽의 부인 유한당 안동권씨의 존재는 매우 크고도 깊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이벽의 죽음에 다산의 만사(輓詞)로 마무리 하면서 유한당 할머니의 영훈의 암식도 빌어보자.

본래 이벽은 평양조씨 조수징(趙壽徵)의 딸(1728~1797, 70살)로 생각된다. 그러면 그녀의 가계를 파조 10세 권수평까지 거슬러가보면 부친부터 한성판윤(서울시장)이니 가히 명문 거족이다.

29세 유한당 부친 권엄(權儼, 1731~1803) 염서공(葉西公), 1756 식년시 포천 거주 유학으로 진사, 흥덕군수, 충정감사, 한성판윤, 병조판서, 기로사, 지종추부사, 73살)

28세 유한당 조부 권밀(權謐, 1669~1766, 68살) 좌참찬

27세 유한당 증조부 권엄(權弇) 지포공(芝浦公), 처사, 하계 권유(權愈)의 문인, 호조참조증 1669~1738, 70살)

26세 권옹(權頤, 1649~1671, 23살, 추증 좌승지) 묘소는 포천시 소재.

25세 권수(權脩, 1618~1684, 67살), 추밀공파 권수계파조, 감사공, 생부는 숙부 권담(權坦, 군기부정부), 승지, 황해도관찰사, 경상관찰사.

24세 권진(權鎮, 1572~1624, 53살) 상락군(上洛公) 수은공, 임진왜란시 선무원동공신1등, 사간원 정언, 병조좌랑, 사헌부정령, 도승지, 이팔난 당시 사행, 신원, 의정부영의정准奏。

23세 권현(權峴, 1554~1594, 41살), 부친 권종 전사시 시신을 포천으로 반장, 공릉합봉, 숭정대부의 정부 좌찬성 추증.

22세 권종(權悰) 충민공, 금산군수, 장열한 전사.

21세 권지(權輯) 중종23년 식년시, 증직대부중림도찰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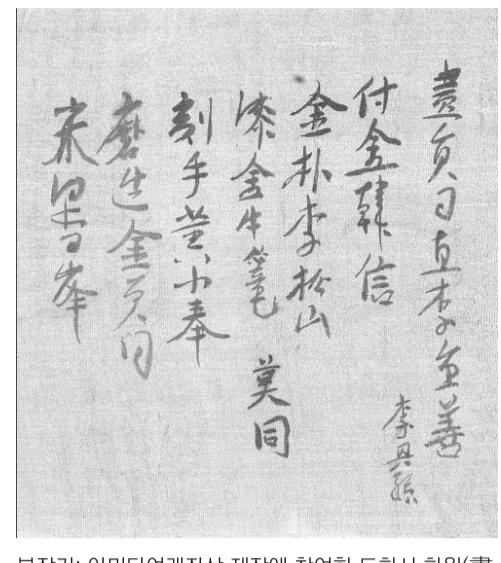
20세 권적(權勤) 강화공(江華公), 1470 의금부도사, 안동부판관, 김포현령, 안산군수, 아들이 권철 영의정, 손자가 권율 장군, 추증 영의정.

(글 권오철 기자)

의빈권씨와 국보 제282호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기: 아미타여래좌상 제작에 참여한 도화서 화원(畫員) 이중선(李重善) 등 9명의 명단

단종의 숙부인 금성대군 이유(李瑜)는 계유정난 이후 모반 혐의를 받아 경기도 삼척에 유배되었다가 경기도 광주로 이배되고, 사육신의 단종복위운동이 실패하자 이에 연루되어 순흥부(영주)에 암치된 후 단종복위를 꾀하다 발각되어 형 세조에게 죽임을 당하고 만다.

왕실에서는 단종과 금성대군의 1주기가 되는 1458년에 얄울하게 죽은 원훈을 달래고 왕실의 안녕을 위해 세종의 형인 효령대군(孝寧大君, 1396~1486)을 비롯해 의빈권씨(懿嬪權氏)와 명빈 김씨(明嬪金氏) 등이 참여하여 불상을 조성한다. 바로 국보 제282호인 영주 흑석사 아미타여래좌상이다. 아미타여래좌상은 조선 전기의 대표적 목조 불상으로 경기도 광주 정암산(井巖山) 법천사(法泉寺)에 삼존불로 모셔졌다가 현재는 경상북도 영주 흑석사에 봉안되어 있다.

박종우 집안은 대대로 부호(富豪)여서 윤사로(尹師路)·윤시윤(尹士均)·정인지(鄭麟趾)와 같이 재물을 모은 것은 서로 비슷하였으므로 '4부(四富)'로 불렸다 한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7월 8일 기미, 박종우 증기)

의빈권씨는 세종의 여섯째 아들 금성대군(錦城大君, 1426~1457)을 어려서부터 친자식처럼 키웠고 금성대군 역시 의빈을 어머니처럼 따랐다. 세종은 1398년 왕자의 난 때 비명횡시한 의안대군 방석이 후손이 없으므로 여섯째 왕자인 금성대군을 의안대군의 봉사손이 되게 하였다.

편집국장 권행완

금성단(錦城壇, 사적 제491호)



금성단 단소 전경: 품(品)자 형태로 가운데에는 금성대군. 원쪽은 무명의 순절의사, 오른쪽은 순흥부사 이보흡을 위한 제단



단종복위운동 순절자의 넋을 기리는 금성대군성인신단비(錦城大君成仁神壇之碑)

제60사단 권율부대 부대원 대종회 방문



부대마크 앞면(좌)과 뒷면(권율장군의 모형)

해 치밀하게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년에는 '권율의 기백 연구팀'을 발족하여 부대의 역사와 전통, 부대임무와 특성 등에 기반하여 '권율의 기백을 닮은 최정예 동원사단'이라는 부대 슬로건에 걸맞는 정신적 가치를 발굴하여 부대원의

신념과 행동지침으로 삼고자 했으며, 군인으로 승화된 권율장군의 생애 전반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훌륭한 덕목을 바탕으로 권율의 기백을 네 가지로 도출했다.

첫째 절의염퇴(節義廉退): 청렴과 절개, 의리, 사양함과 겹양은 늘 지켜야 한다. 둘째 위국헌신(爲國獻身):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다. 셋째 전승불복(戰勝不復): 전쟁에서는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 승리할 수 없다. 넷째 동심협력(同心協力): 마음을 합하여 서로 돋는다.

이 네 가지를 권율부대 부대정신으로 정립하여 2022년 1월 7일 공식적으로 부대정신 선포식을 거행했다고 말했다.

향후 안동권씨 대종회와 제60사단은 상호 협조하면서 방문,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이어가자고 기약했다.

편집국장 권행완



권칠인 전 화폐본부장(오른쪽), 최외출 영남대총장(왼쪽)

리팀장, 기술연구원 연구기획실장, 화폐본부 주학처장, ID생산처장, ID본부장, 화폐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2020년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장 재임 시절, 영남대를 비롯한 경상시, 경산소방서 경산세무서 등 다양한 지역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인재 육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 왔다.

한정타임즈 권성옥 기자

권칠인 전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장

영남대학교에 산학협력 장학금 천만원 기탁

42년 공직생활 마무리하며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 사회 환원 기부 결심

권칠인 전 화폐본부장은 2월 14일 영남대학교 최외출 총장을 만나 대학발전 기금으로 1천만원을 전달했다.

권 전 본부장은 문경 출신으로 고진성(부정공파 36세)의 6남매 중 넷째로 태어나 한국조폐공사에 입사하여 42년간 조폐인으로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지난해 연말 정년퇴임을 하면서 "그동안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을 조금이나마 사회로 환원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다. 그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

그날 밤 꿈에 금성대군이 나타나 그곳은 자신이 피흘린 곳임을 말함으로써 곧바로 그곳을 시켜 조사한 후 이곳을 봉축하고 단을 쌓았다.

정개青年皆 권오진 權五辰